

## AI 시대의 도전과 대학의 통번역 교육\*

이상빈\*\*

*Sang-Bin Lee (2024). Translation education in the age of AI: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This essay explores how undergraduate translation departments should adjust their educational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rapid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begins by examining how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allenge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reshape the public perception of translation education. It then critically assesses the current attitudes of translation instructors, who are struggling to adapt to this evolving educational environment. Finally, the essay proposes five interrelated strategies for translation educators to survive in the face of AI's growing influence. These strategies include fostering "M-shaped" talent rather than the traditionally sought "I-shaped" and "T-shaped" talent; integrating translation courses more strategically; rethinking the traditional emphasis on practice-oriented courses; de-emphasizing translation in the curriculum to redefine the department's scholarly identity; and developing expertise in fields outsid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ChatGPT, AI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ranslation education, public perception of translation**

**주제어: 챗GPT, 인공지능 번역, 기계번역, 번역 교육, 번역에 관한 대중의 인식**

---

\* 익명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글은 통번역 교육에 관한 학술적 에세이이다. 국내에서도 통번역 교육의 미래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EICC)학과, 정교수

## 들어가기에 앞서

Not everything that is faced can be changed,  
but nothing can be changed until it is faced.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직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James Baldwin -

인공지능에 관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일종의 해결사로 묘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다투어 도입 중인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찬양한다. 이런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통번역이다.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는 AI 자동 통번역 기능을 제품의 제1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로 내세우면서 인공지능 통번역에 관한 신문 기사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 관련 보도나 광고대로라면 이제 일반인들도 언어장벽 때문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만들어 낸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인문 교육에 전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번역을 비롯한 외국어 관련 학과들은 산업 구도의 재편과 외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불과 4~5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교수자는 이렇게 급변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나아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나 역시 최근 일어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할지를 두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고민 중 일부를 풀어낸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학부)의 통번역<sup>1)</sup> 전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개략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통번역 교육이 직면한 현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통번역 교육자의 태도와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통번역 교육이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큰 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이 글에서는 주로 학부 번역, 때에 따라 통역 교육을 다룬다. 필자의 주장을 통번역 교육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어 교육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 1. 주판에서 챗GPT로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88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나와 나이가 대가 비슷한 독자라면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상징하던 주산학원을 잠시라도 다닌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당시 주산의 인기는 대단했다. 어떤 전문가는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머릿속에 그린 가상의 주판을 통해 매우 어려워 보이는 계산을 척척 해냈다. 그러나 주산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PC)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컴퓨터가 주판 대신 테크놀로지의 표상이 되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컴퓨터 학원에 등록시키면서 다가올 ‘첨단’의 미래를 대비했다. 하지만 ‘윈도우95’라는 운영 체제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사용이 대중화되었고, 결국 컴퓨터 학원도 주산학원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90년대 말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됐고,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이라는 초소형 컴퓨터가 우리 일상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듯이, 2022년 11월에는 챗GPT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GPT)의 시대가 열렸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한동안 공상과학소설의 소재로만 여겨졌던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을 조금씩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내가 지난 30년 가까이 경험한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현기증 날 만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향후 30년이 무척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가지각색이다. 가령,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탄생을 핵무기 개발에까지 비유하면서 인공지능의 힘을 높이 평가한다. 인공지능의 개척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구글을 퇴사하기까지 했다. 그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텐데, 우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라고 경고한 바 있다(Heaven 2023). 한편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의 한계와 인간지능의 우월함에 주목한다. 즉,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겠지만 창의성이나 추론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지능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주장한다. 사실, 인공지능이 몰고 올 미래를 예측하기란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쪽 말을 들어도 나름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실해 보이는 명제 하나는 있다. 당신이 어떤 진영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인공지능의 현재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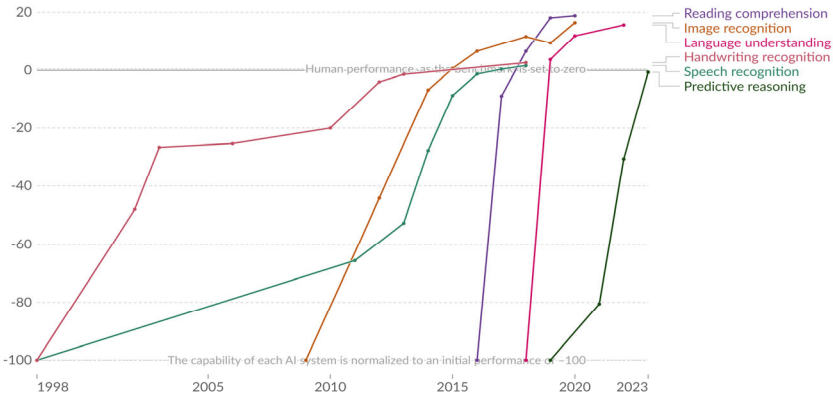
확히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변의 비전문가들이 전하는 파편적인 주장이나 경험만으로는 내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판단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인간지능을 뛰어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데이터는 넘쳐난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은 ‘독해’, ‘이미지 인식’, ‘언어 이해’, ‘필기 인식’, ‘음성 인식’, ‘예측 추론’ 등의 영역에서 이미 인간을 따라잡거나 넘어섰다(Roser 2022).

### Test scores of AI systems on various capabilities relative to human performance

Our World in Data

Within each domain, the initial performance of the AI is set to -100. Human performance is used as a baseline, set to zero. When the AI's performance crosses the zero line, it scored more points than humans.



Data source: Kiela et al. (2023)

OurWorldInData.org/artificial-intelligence | CC BY

Note: For each capability, the first year always shows a baseline of -100, even if better performance was recorded later that year.

주: Y축 값 “0”을 넘으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보다 뛰어난 상태임

### 그림 1. 인간지능 대비 인공지능의 능력

<그림 1>에서 확인한 인공지능의 능력은 통번역이나 외국어 교육과 관련이 깊다.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이 현재도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데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처럼 외국어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번역 교육도 과거의 주산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처럼 시들해지거나 사라질 운명일까? 디지털카메라에 자리를 내준 동네 사진관과 비슷한 길을 밟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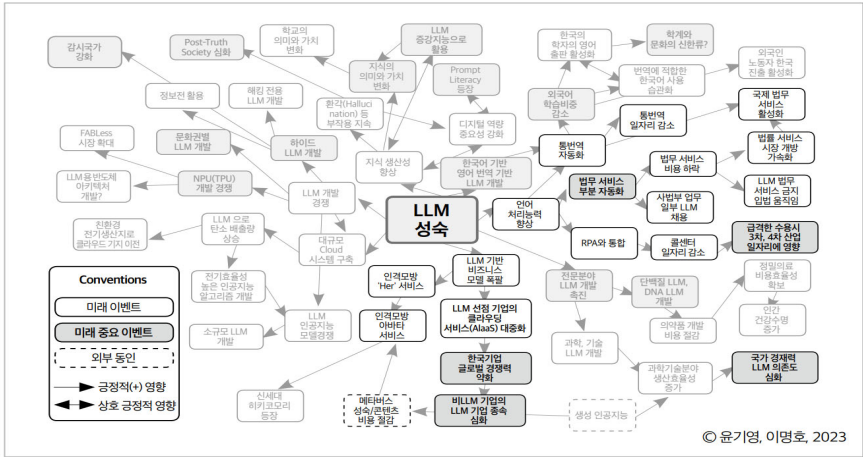


그림 2. 거대언어모델 미래 전개도(윤기영·이명호 2023)

윤기영과 이명호(2023)가 제시한 ‘거대언어모델 미래 전개도’를 살펴보자.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림 2>의 1사분면 영역, 즉 LLM이 발전하면서 통번역과 외국어 분야가 어떻게 변할지를 시각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보기 쉽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LLM 성숙 → 한국어 기반/ 영어 번역 기반 LLM 개발 → 통번역 자동화 → 외국어 학습 비용 감소, 통번역 일자리 감소 → 번역에 적합한 한국어 사용 습관화……

요는 통번역 자동화가 심화하면서 통번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가령, 통번역 자동화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나, 외국어 관련 직종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혹은 기계번역 사용이 늘면서 기존의 번역가들이 포스트에디터로 정체성을 바꾸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의 확산으로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가 정착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오히려 종이 사용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ODT 2023). 하지만 내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문 번역가와 그들의 번역 노동은 크게 줄 거라는 점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앞세우는 게 통번역 교육에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혹시 ‘파스칼의 내기’(Pari de Pascal)를 들어봤는가? 파스칼의 내기는 프랑

스의 신학자, 철학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제시한 논증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일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두고 내기를 한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신을 믿으면 기껏해야 시간적, 금전적 손실 등을 경험하겠지만,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몰고 올 도전과 위기를 지나칠 정도로 냉철하게 인식하고 대비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만일 미적거리거나 조금이라도 안주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공지능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한계나 인간지능의 위대함만을 생각하며 안일한 자세를 견지하는 건 더욱더 위험하다.

## 2. 비관주의 회피 함정

정말로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까? 이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인공지능이 미국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과 인식」(AI in Hiring and Evaluating Workers: What Americans Think)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대다수(83%)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23). 이 조사의 세부 내용은 더욱더 흥미롭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향후 20년간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major impact)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62%인데 반해, 인공지능이 ‘자신의’ 일자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즉, 응답자의 다수가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여파<sup>2)</sup>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비관주의 회피 함정’(pessimism-aversion trap)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관주의 회피 함정이란 불확실성이나 위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피하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다(Suleyman 2023: 13).<sup>3)</sup> 비관주의 회피 함정의 구체적 증상은 이렇다. 원치 않는

---

2) 그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테크놀로지로 인해 특정 일자리가 사라져도 전체 노동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부정적 여파”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

현실의 모습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장밋빛 전망을 무의식적으로 과도하게 추구한다. 또한 주변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현실이나 전망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 그 결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다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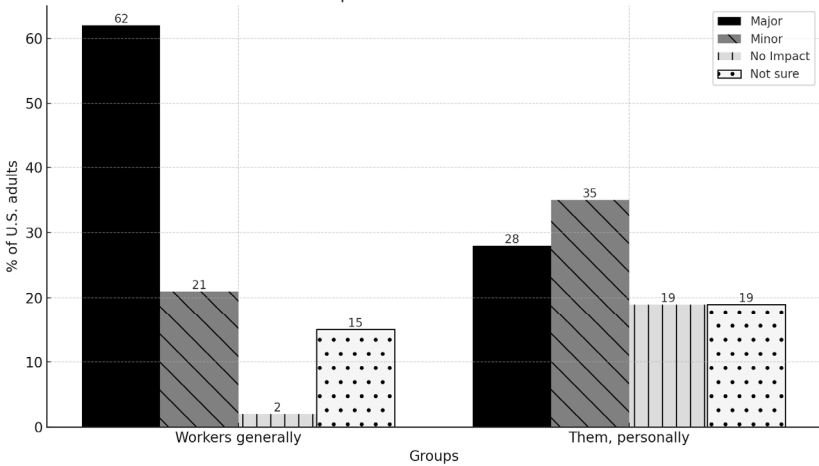


그림 3. 인공지능이 향후 20년간 미국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챗GPT로 재구성)

현재 우리가 비관주의 회피 함정에 빠졌다는 건 지나친 주장일까?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주변의 많은 교육자가 나름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낸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학과 커리큘럼에 기계번역 수업을 도입하거나 전문 교원을 충원하는 등의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혁신이나 모범사례는 더 이상 아니다.

전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개별 교실 현장도 비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일부 교수자들이 최근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챗GPT나 멤소스 등을 활용했다고 해

3) 설리만이 만든 용어는 아니다. 그는 『The Coming Wave』에서 비관주의 회피 전망을 “the misguided analysis that arises when you are overwhelmed by a fear of confronting potentially dark realities, and the resulting tendency to look the other way”로 정의했다(Suleyman 2023: 13).

서 그것이 혁신을 상징하는 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시도들이 가벼운 변화로만 남은 채, 번역 수업에서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오히려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빨간색 알약을 먹고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파란색 알약을 먹고 ‘행복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을 먹으면서, 기계와 인간 대결이라는 장대한 서사가 펼쳐진다. 우리의 교육 개혁도 이처럼 냉철한 현실 인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교수자가 빨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황을 적당히 이해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 후에는 쓰디쓴 자기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 CEO들에게 혁신에 관해 물으면, 회사나 직원을 혁신의 대상으로 여기지 자신을 혁신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변형균 2024). 자기 혁신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바꾸진 못해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순 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접자. 「매트릭스」도 인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인류와 기계의 공생, 기계와 절연되어 생존하는 인류의 모습이 이 영화의 엔딩이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존 인류의 모습을 찾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지 모른다. 너무 냉소적으로 들리는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부하기 전에 잠시라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 3. 배양 이론과 대중의 인식

배양 이론(cultivation theory)은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내용과 시청자 의식의 관계성을 설명한 사회과학 이론이다(Gerbner et al. 1980). 이 이론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시청자는 그렇지 않은 시청자와 달리, 현실을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범죄 관련 뉴스를 많이 보면 현실을 좀 더 위험하게 생각한다거나 드라마 시청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편견이 커진다는 것이다. 배양 이론은 그 주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신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고, 그 효과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Hermann et al. 2021).

갑자기 배양 이론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통번역 생태계가 극심한 배양 효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인공지능 통번역이나 기계



번역에 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필자가 2024년 7월4)에 받은 뉴스봇 알림 중에는 다음과 같은 보도들이 있다.

- 머니투데이: 대형로펌 뛰쳐나온 변호사, 챗GPT보다 똑똑한 ‘AI 번역’ 해냈다 (남미래, 2024. 7. 25.)
- YTN: 영상편집·통역도 척척... 유통가에 스며든 AI (오동건, 2024. 7. 20.)
- ZDNET Korea: 언어 잘하는 모델 넣었다... 딥엘, 기업용 번역 서비스 출시 (김미정, 2024. 7. 18.)
- 중앙일보: 뭐, 비행기에서 번역 된다고?... 해외여행 ‘최강 통역기’ 정채 (권유진, 2024. 7. 15.)
- 서울경제: 멸종 직전 희귀한 언어도 번역해 드려요... 구글, 110개 언어 번역 추가 (서정명, 2024. 7. 11.)
- 매일경제: 조선소 통역사 된 AI... 전문용어도 척척 (최현재, 2024. 7. 9.)
- 한국경제: 화상회의 동시통역에 골프 중계까지... 다재다능 구글 생성 AI (김대영, 2024. 7. 3.)

언론보도의 특징과 관행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헤드라인이 현실을 과장했을지언정 왜곡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보도들이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게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도를 몇 번 접했다고 해서 통번역에 관한 일반인의 시각이 갑자기 바뀔 거라는 뜻은 아니다. 더군다나 일반인 중에는 나처럼 통번역 테크놀로지에 관한 기사를 자주 읽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주시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언론보도는 다양한 분야(유통, 기업, 비행기, 골프, 조선소 등)에서 이미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통번역에 관한 대중의 인식도 조만간 제법 인지할 만한 수준으로 변할 거라는 게 내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는 언론보도 자체만을 문제 삼을지도 모르겠다. 언론보도가 과도한 테크놀로지 해결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나 테크놀로지 중심주의(techno-centrism)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디어 소비자들이 통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끔 만든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간 통번역사의 능력이나 가치를 강조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인간 통번역사의 실존적 가치를 부르짖는 간헐적 보도나 칼럼이 테크놀로지의 물결을 막아내기

---

4)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봤을 때가 2024년 7월이었기에, 편의상 7월 자료 중 일부만 소개한다.

란 불가능해 보인다. 디지털카메라와 고해상도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상황에서 필름 사진(술)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든, 일반 대중이 얼마나 전통을 고수하려 하겠는가?

테크놀로지를 통해 통번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번역가의 인지적 수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통번역사의 작업 효율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통번역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통번역을 배우는 게 통번역 자체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인공지능 시대에 통번역을 배워서 뭘에 쓰느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받을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끝도 없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참자. 어쨌든 요지는 테크놀로지의 엄습이 통번역에 관한 인식을 뒤바꿔 놓을 것이고, 관련 산업과 교육에도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이다.

#### 4. 공진화(共進化)는 가능한가?

인공지능 관련 논문이나 서적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진화’(co-evolution)를 강조하는 내용이 단골처럼 등장한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거나 인간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진화는 결국 인간의 진화를 촉발한다는 내용이다. 공진화 논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인간 지능은 일대일 관계 속에서 미묘한 상호작용을 미치고 복잡한 피드백 루프 속에서 상호 진화를 유도한다. 멋지게 들리지 않는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진화는 ‘진화’라는 단어가 만들어 내는 긍정적 연상 작용 덕분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최근 번역 분야에도 공진화에 관한 논의가 등장했다. 일례로, 2023년 5월 26일 한국문화번역원이 개최한 <AI번역 현황과 문학번역의 미래> 심포지엄의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번역원은 “AI와 인간의 공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번역원 역시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문학 번역과 번역 교육 분야에서 AI와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수용범위와 윤리 등에 대한 범사회적 고민에 충실히 참여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라며, “AI전문가부터 문학번역, 법률 전문가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문학 번역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문학번역과 번역교육 분야의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 2023: 3).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과 인간 번역(가)의 협업은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가능할까? 그것도 가장 인간적인 ‘문학번역’ 분야에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 번역가의 실질적, 존재론적 가치는 기계번역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자동 번역기는 번역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번역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등의 테크놀로지는 인간 번역가의 ‘진화’를 촉발하고 지속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당신이 전문 번역가라면 인공지능이나 자동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작업 마감일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인지적 미로를 힘겹게 빠져나올 때 번역가 —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번역가 — 만이 느낄 수 있는 효능감과 성취감은 기계 때문에 상당 부분 사라질지도 모른다(이상빈 2024a). 번역 과정의 대부분을 기계가 도맡아 한다면 당신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독자나 고객들이 당신을 진정한 번역가로 인정해 줄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가?5) 번역료만 제때 입금되기를 원하거나 테크놀로지를 좀 쓴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자에겐 ‘공진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번역 발주자나 독자의 시각에서 보면 번역물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을 진화라고 불려야 할까? 일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덕택에 번역의 포드주의(Fordism)를 실천할 수 있게 됐으니,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진화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인간 번역가에게 진정한 진화가 일어나려면 진화에 관한 좀 더 근사하고 철학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등의 테크놀로지와 인간 번역가의 관계는 차라리 공생(symbiosis)으로 설명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공생에는 서너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 첫째, 상리공생(相利共生)이다. 꽃과 벌의 관계처럼 두 개체 사이에 호혜의 원칙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 번역가의 관계가 상리공생일 수 있을까? 컴퓨터 보조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상리공생이라는 표현도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 예컨대 컴퓨터 보조 번역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번역가가 시스템 내에서 전문용어를 계속해 업데이트한다고 치자. 이런 작업이 누적돼

---

5) 이에 관한 다른 시각도 있다(이상빈 2024b).

시스템이 개선되고 다른 번역가들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상리공생이 구현된 것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만 생각하면 테크놀로지와 인간 번역가의 관계는 상리공생, 아니 공진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공생의 두 번째 유형은 편리공생(片利共生)과 편해공생(片害共生)이다. 전자는 한 종이 이익을 얻으나 다른 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후자는 한 종이 피해를 보나 다른 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령, 일반 상어와 빨판상어의 관계는 편리공생에 해당하고, 큰 나무에 가려 햇빛을 못 받는 작은 나무는 편해공생에 해당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인간 번역가는 어떤 처지에 있는 개체일까? 여러분이 기계번역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누군가는 빨판상어와 비슷하다고 말하겠고, 다른 누군가는 햇빛을 못 받는 작은 나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공생의 마지막 유형은 ‘기생’이다. 벼룩과 개의 관계처럼 한 종은 이득을 취하지만 다른 종은 피해를 보는 경우다. 기계와 인간 번역가의 관계를 매우 암울하게 본다면, 인간은 기생 관계의 ‘개’와 흡사할 것이다. 반복적인 디지털 노동에만 시달리며 기계(벼룩)에게 데이터(피)를 공급하는 존재, 기계 덕택에 작업을 빨리할 수 있으나 자부심이나 효능감 따위는 포기해야 하는 존재 말이다.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 번역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느냐에 따라 공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된다.

내가 공진화와 공생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당 교수자의 번역 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공진화나 상리공생으로만 해석하면, 인공지능과 기계번역 관련 수업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만 같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 내가 보기에, 양자의 관계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인간에게 불리한 공생 관계들을 가정해야만 인공지능 시대의 번역 교육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 5.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표준국어대사전). 이런 사전적 정의를 보니, 용

어를 구성하는 한자 뜻과는 달리 섬뜩한 느낌마저도 든다. 사실 내가 여기서 잠깐 언급할 내용도 이만큼 무서운 이야기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통번역 교육자와 외국어 교수자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내 주변의 많은 교수가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미래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시행 중이고,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skills)을 조금이라도 더 전수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강의와 실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칫 ‘미필적 고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통번역 교육과 관련해 내가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대응력과 역량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점은 통번역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문학, 나아가 기존 대학 교육의 총체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학이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이나 인문학의 인기가 시들해진 점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회경제적 메가시프트(mega-shift)에 있다. 전통 학문 분야의 지식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의문이고, 이제는 한 업종에서 퇴직할 때까지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학생들에게 통번역 관련 지식을 전수해도, 그들이 직장인이 됐을 때, 특히 40대가 됐을 때, 그런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통번역 기술(skills)을 가르쳤는데, 정작 그 기술이 인공지능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쓰임새가 없다면, 장차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교수자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졸업 직후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해선 안 되고, 10~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미시적인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거시적인 역량(competency)을 키워주는 게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오늘의 기계번역 교육이 미래의 번역가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기계번역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 또한 소속 학과나 그간의 논문에서 컴퓨터 보조 번역이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강조해 왔다. 이제 기계번역에 관한 지식과 기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번역 전공자라 말할 수 없다. 이제 통번역 전공자는 자연어 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진 못해도 기계번

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계번역 교육이 우리의 바람이나 의도와 달리, 향후 번역의 위상이나 번역가의 처우를 끌어 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내가 다른 글에서 논했듯이, 인공지능과 기계번역이 발전하면 번역 종사자들이 실존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디지털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빈 2024a). 설령 번역가의 평균 월급이나 수당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좋아져도, 그들의 실존적 가치까지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번역 교육의 초점을 테크놀로지에 지나치게 맞추면 자칫 미필적 고의를 범할 수 있다고.

‘미필적 고의’의 뜻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자. 통번역 교육자와 외국어 교수자들이 미필적 고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5년 후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자. 현재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도움이 될까? 통번역으로 평생 먹고살 줄업생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은 당장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민이자 성찰이어야 한다. 5년 뒤만 생각할 거라면, 인공지능에 관한 고민은 옛사람들 말대로 옛과 바뀌 먹는 게 나올 것 같다.

## 6. 바보야, 중요한 건 과정이야!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클린턴 캠프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이 만든 대선 구호이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경제 회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로 삼았고 이를 반영한 슬로건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후 이 슬로건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작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최근 기계번역 담론이 주변을 휩쓸고 있고 번역 작업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가령, 어떤 번역기가 더 좋더라, 어떻게 해야 기계번역 결과물(raw output)이 좋더라, 기계번역의 효율성은 어떤 텍스트에서 더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논의 말이다. 당연히 번역 결과물은 좋아야 한다. 되도록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상의 번역을 만들어 내는 게 당장 작업에 투입된 번역가에게는 지상 최대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부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메커니즘과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번역 과업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고 문화적 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게 학생 대부분에게는 더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를 짓누르는 번역 세계의 결과지상주의나 성과주의는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 같은 통번역 교수자들은 “바보야, 중요한 건 과정이야!”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아직도 주변에는 자동 번역기가 없는 수업을 꿈꾸며 기계번역 사용을 금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들의 상황을 들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자동 번역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기계번역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해당 외국어나 번역 능력은커녕 번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답안지를 보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를 좋아할 수학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 학생들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언정 번역기 사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성적은 잘 받아야 하니, 번역기와 GPT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드래그와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자기가 한두 시간 동안 한 번역보다 좋은 번역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 커닝을 한 번도 안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우직한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믿음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도덕군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위선일 수 있다. 기계번역 사용을 금지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영어 전공’인 나는 답엘 같은 번역기를 ‘한영사전’ 정도로 취급한다). 학생들이 번역기의 존재를 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 즉, 번역 결과물이 아닌,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춘 실라버스를 개발해야 한다. 번역기를 사용하면 학생 스스로 불편해지거나 번역기가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수업 말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영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할지 모른다. 학생들이 배우는 전공어가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만 잠시 접했던 것이거나 특정 대학이나 학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특수 외국어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학생들에게는 간단한 작문도 버거울 때가 많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GPT 번역이나 기계번역(품질이 나쁘다고 해도 학생이 한 번역보다는 훨씬 우수한 번역)은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고 교수자의 사기도 단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 중심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수

업, ‘참여’가 학습의 큰 축을 차지하는 수업이 변화의 핵심이다.

## 7. 대학 통번역 교육의 방향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의 통번역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효과적일, 단일의 대안이나 접근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수자가 속한 대학의 수준과 상황, 전공 언어, 학과의 내부 상황, 학생의 교육 수준과 기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큰 틀에서만 학부 교육의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전략 없이 구체적인 전술을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생각한 교육 운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된 다섯 가지다. 첫째, ‘M자형 인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아주 오랫동안 — 산업혁명 후부터 꽤 최근까지 — 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I자형 인재’를 추구했다. 특정 분야를 남보다 오래, 깊게 파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순 모델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고 노동시장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이런 모델로는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웃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소위 ‘T자형 인재’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델의 생명력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오면서 이제 온 세상이 M자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독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박학다식형 인재 말이다.

전통적인 통번역대학원들은 I자형 인재 양성을 지향했다. 커리큘럼에 통번역 이외의 과목도 반영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번역 실무를 위한 보조과목 수준이었다. 실전에 바로 투입할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니, 이런 교육 모델을 쫓는 게 당연하다. 이와 비교해 학부의 통번역 교육은 T자형 모델에 가깝다. 학부의 총체적 교육 목표는 전문 통번역사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전공어 분야에서 한껏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의사소통 전문가나 ‘범용’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부 교육은 통번역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업이나 기존의 외국어 학과들이 운영해 왔던 교과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확장형’ 모델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진부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젠 통번역이라는 축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통번역만큼이나 학과 교육을 떠



받칠 수 있는 새로운 축들이 필요하다. 보조 축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 축 말이다. 언어학이나 문학을 통번역과 함께 가르쳐 왔던 학과들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아 보인다. 다만 이런 학과에서도 시들해지는 인문학 중심의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축은 ‘자연어 처리’처럼 최근 일부 학과에서 시도하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가 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 교육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과 무관한 제삼 지대의 학문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축이 뭘지는 학과의 비전과 교육 목표에 달려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배를 띄어야 할지 정할 수가 없다.

둘째, 통번역 수업 세분화를 지양하자(cf. 송연석 2024). 전통적인 통번역 교육은 통번역의 방향, 원문의 장르나 주제 분야, 원문/실습의 난이도, 이론의 정도 등에 따라 세분되었다. 가령 <통번역 개론>, <영한 순차 통역 1>, <영한 순차 통역 2>, <한영 번역>, <고급 한영 번역>, <문학번역>, <정치·경제 번역>, <미디어 번역> 같은 과목명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통번역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때는 이런 분류가 이상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주장한 M자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분화 전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포기’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는 통번역 지식과 기술을 예전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인공지능과 자동 번역기가 번역의 많은 부분을 맡을 시대라면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간소화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전통적 개념의 통번역사를 양성할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짐을 푸는 ‘언패킹’(unpacking)에서 짐을 싸는 ‘패킹’(packing)으로 태세를 전환할 때다.

국내외 대학들이 교육 체계를 바꾸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많은 국내 대학에서 제1 전공 규모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미 주요 사립대들이 마이크로 전공이나 나노 전공 같은 새로운 전공 방식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높아만 보였던 전공 사이의 벽을 다양한 방식과 협업 체계로 허물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교육 당국의 지원과 권고(?)로 ‘無전공’(자유전공)이라는 급진적 제도도 도입됐다. 이제는 통번역 교육이 학과 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상적인 세분화 전략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진행 중인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대학 교육의 목표는 지식과 기술의 본체인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고, 노하우를 찾는 데 필요한 ‘노웨어’(know-where) 능

력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첨단기술 덕택에 어디서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이제 많은 전문가가 전통적인 대학 교육과 교수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알파 세대(아주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디지털 네이티브)는 경계가 모호하고 비전통적인 콘텐츠와 학습에 익숙해진 상태다. 이제 진정한 대학 교육은 학습자가 언제라도 원하는 분야에서 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이 근본적인 지식 체계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노와이’(know-why)를 강조하고, 고정 지능(crystalized intelligence)보다는 유동 지능(fluid intelligence)<sup>6)</sup>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통번역 실습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번역 학과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듯이 자신의 전공어를 다양한 실습 형태로 연마하는데 있다. 내가 통번역 전공자라서 편견 섞인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통번역 실습은 외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있어 단연 효과적이다. 영어를 싫어하고 못 했던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듯싶고, 제법 인기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 과정을 봐도 통번역 실습의 효용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번역 학과에서 학생들의 전공어 실력을 배가하려면 시사 문제를 반영한 각종 실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 통번역 학과를 졸업해 남는 건 이론서가 아니라 실습에 썼던 수많은 A4 용지뿐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번역 실습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건 우리 집단을 지배해 왔던 하이브 마인드(hive mind)를 바꾸자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통번역 실습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세상이 왔다(챗GPT 공개 이전에 이미 그런 세상이 왔다!). 이제 일반적인 통번역 분야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어 경쟁력 하나만으로는 폴리매스(polymath)를 요구하는 노동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물론 최고급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한다거나 특수 외국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여전히 몸값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만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다. M자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상 중복성이 거의 없고 기계번역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범용성이 높은 과목만을 실습 형태

---

6) 고정 지능은 과거의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과 관련 있고, 유동 지능은 보유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과 관련 있다.

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기존 수업들은 다른 유형의 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한 번역>과 같이 특징 없는 번역 수업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이미 실습형 수업을 꽤 버린 학과들이 있다. 사실, 버렸다기보다는 학과 교수들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실습 일변도의 교과과정을 택하지 않은 학과들이다. 과거 나는 이런 학과의 커리큘럼보다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이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나의 교육철학 때문이 아니라 취업하고 일을 할 때 효용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당장은 필요성이 적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 진정 고등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 대학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글쓰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단순한 기교로서의 글쓰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다. 이런 근본적인 영역을 통번역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이 놓쳤던 게 사실이다. 번역 ‘능력’(competence)에 초점을 맞춘 결과, 글쓰기 ‘역량’(competency)<sup>7)</sup>에는 소홀했다. 이를테면, 거대한 빙산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했지, 수면 아래에 있는 더 큰 부분을 놓친 것이다. 외국어는 일반인들보다 잘하는데 글쓰기가 안 되는 ‘번역가’도 많이 봤고, 말이 논리적이지 않은 ‘통역사’도 제법 봤다. 단순 독해와 듣기가 경쟁력을 줄 때는 이런 통번역사들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조만간 그들의 자리를 기계가 빼앗을 것이다.

넷째, 통번역 ‘백그라운드’(backgrounding)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내 학부 통번역 교수자라면 ‘통번역’이라는 세 글자가 유행했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소속된 학과도 2000년대 말이나 2010년대 초에는 속된 말로 매우 잘 나갔다. 통번역은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통번역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유용한 공부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번역 실습을 커리큘럼에서 강조하는 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통번역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인기는 10년 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가 머쓱하고 슬프기도 하나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통번역 학과의 학문적 정체성은 (적어도 학과 이름으로 볼 때) 통번역에 있겠지

---

7) 능력(competence)과 역량(competency)은 라틴어 *competentia*에서 유래했지만, 두 용어의 뜻은 확연히 다르다. 능력은 특정 분야에서의 기술과 지식을 가리키는 데 반해, 역량은 오랜 기간에 걸쳐야만 강화가 가능한 본성에 가깝다(류태호 2023: 104-106).

만, 이제는 이런 믿음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통번역을 완전히 버리려는 말이 아니다. 통번역을 굳이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으며, 학문적 정체성의 하이브리드화를 추구하거나 정체성을 분산시키라는 뜻이다. 물론 소속 대학이나 학과 사정에 따라 방향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어학이나 문학 등과 공존하고 있는 ‘통번역’ 학과는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뭔가를 혁신할 마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정체성부터 바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어찌면 이런 사례를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종합금융지주사인 골드만삭스의 CEO는 2017년에 “우리는 테크놀로지 기업이자 플랫폼이다”(We are a technology firm. We are a platform.)라고 선언했고(Gupta and Simonds 2017),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금융 회사인 ING와 대형 은행들은 “은행을 은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깨뜨림”(unbank the bank)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Neeley and Leonardi 2022/2024: 253).

결국으로, 교수자가 변해야 한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린다면 이렇게 바꿔보자. 혁신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우리)이다. 대학(원) 커리큘럼이나 교수법 등에 있어 통번역 분야만큼 변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 현재 교수자 상당수가 학생 시절 배웠던 걸 거의 그대로 가르치거나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 통번역 생태계와 직업 환경이 아직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가 그 어느 교수자 집단보다도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것 같다. 안 그래도 대학 교육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나오는데,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서비스 제공자인 우리에게도 때로는 감조차 오지 않는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을 빌자면, 19세기 교육 환경에서 20세기 교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실(한치원 2021에서 재인용)이 통번역 교육만큼 맞아떨어지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이제 교수자는 새로운 분야를 독학하고 개척해야 한다. 여태껏 배워왔고 가르쳤던 것을 일부 포기하고 나부터가 학습자로 변모해야 한다. 뭘 배워야 할지는 나도 모른다. 저마다 교육철학이나 사정이 다를 테고 교육 여건도 상이할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공부를 하는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교수임을 인정해야 한다.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건 특정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지만, 새로운 분야를 독학하여 가르칠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의 근무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신규 교원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만큼, 기존 교수자가 변하지 않고서는 새로

운 시도를 할 수 없다. 통번역학 박사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인공지능이든 뭐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교수자의 업스킬링(upskilling)뿐만 아니라 리스킬링(reskilling)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면에서 교강사 간의 공식적인 학술교류도 중요하다. 개별 교실 현장에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는 학과장도 알기 어렵다. 그간의 통번역 중심 커리큘럼에서는 중복되는 학습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복습’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 비효율로 인정해야 한다. 즉, 아는 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는 폐기 학습(unlearning)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과 차원의 교강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무조건 대규모 세미나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교강사에게 교육 방향만 주지시켜도 좋고, 새로운 교과목 개발을 독려하며 독학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영한 번역>과 같은 수업을 담당해 오던 교강사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전공자가 학과에 편입되어 기존 강사들을 독려하고 추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의 외국어 교수자들은 전쟁 중이다. 다만, 저마다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뿐이다. 소속 대학의 대외적 위상, 학생들의 능력과 기대, 전공어의 기계번역 품질, 전공어에 대한 인식과 필요 등에 따라 어떤 이는 성 밖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시작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벽 안에 머물며 가끔 날라 오는 포탄만을 피하고 있을지 모른다. 저마다 이 전쟁을 보는 관점과 경험은 다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포탄의 위협은 누구에게나 거세질 것이다. 내가 속해 있는 학문 분야와 대학(원)만을 봐서는 안 된다. 각 전투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다른 외국어 전공자, 다른 통번역 전공자의 상황을 주시하고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만 이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류태호. (2023). 『챗GPT 활용 AI 교육 대전환』. 서울: 포르체.
- 변형균. (2024). 『통찰하는 기계 질문하는 리더』. 서울: 한빛비즈.
- 송연석. (2024). 「AI 시대의 번역 교육 —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자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31-55.
- 윤기영과 이명호. (2023). 「거대 언어모델 미래전개도 II: STEEP 프레임으로 기회와 위험 탐색」. 『SW중심사회』 107(5): 70-83.
- 이상빈. (2024a). 「바벨탑 3.0의 시대, 인공지능과 번역을 논하다」. 『번역학연구』 25(3): 11-30.
- 이상빈. (2024b). 「AI 번역 시대, 번역과 번역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통역과 번역』 26(3): 125-151.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America: Violence profile no.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Gupta, S., and Simonds, S. (2017). Goldman Sachs’ digital journey.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518-039* (Revised May 2019).
- Hermann, E., Morgan, M., and Shanahan, J. (2021). Television, continuity, and change: A meta-analysis of five decades of cultivation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71(4): 515-544.
- Neeley, T., and Leonardi, P. (2022/2024). AI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조성숙 옮김). 파주: 월북.
- Suleyman, M. (2023). *The coming wave: Technology, power, and the twenty-first century’s greatest dilemma*. New York: Crown Publishing Group.

### [인터넷 자료]

- 권유진. (2024). 뭐, 비행기에서 번역 된다고?... 해외여행 ‘최강 통역기’ 정체. 중앙일보. <https://bit.ly/46hhVJn> (2024.7.30.검색).
- 김대영. (2024). 화상회의 동시통역에 골프 중계까지... 다재다능 구글 생성 AI. 한국경제. <https://bit.ly/4fga8j0> (2024.7.30.검색).
- 김미정. (2024). 언어 잘하는 모델 넣었다... 답엘, 기업용 번역 서비스 출시. ZDNET Korea. <https://bit.ly/46gdoa9> (2024.7.30.검색)
- 남미래. (2024). 대형로펌 뛰쳐나온 변호사, 챗GPT보다 똑똑한 ‘AI 번역’ 해냈다. 머니투데이. <https://bit.ly/3WQiWVx> (2024.7.30.검색).
- 서정명. (2024). 멸종 직전 희귀한 언어도 번역해 드려요... 구글, 110개 언어 번역 추가. 서울경제. <https://bit.ly/3ybQTXb> (2024.7.30.검색).
- 오동건. (2024). 영상편집·통역도 척척... 유통가에 스며든 AI. YTN. <https://bit.ly/3YiDhE5> (2024.7.30.검색).
- 최현재. (2024). 조선소 통역사 된 AI... 전문용어도 척척. 매일경제. <https://bit.ly/4ftvc3>

- (2024.7.30.검색).
- 표준국어대사전. (n.d.).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4.7.30.검색).
- 한국문학번역원. (2023). 보도자료: ‘AI번역 현황과 문학번역의 미래’에 대한 공론의 장 열린다. <https://bit.ly/3SrZzss> (2024.7.29.검색).
- 한치원. (2021). AFTER COVID-19, 해외 명문 학교의 학습 키워드?... “빠르게 아닌 다르게 키워야 한다.” <https://bit.ly/3D7JZo1> (2024.12.10.검색).
- Heaven, W. D. (2023). Geoffrey Hinton tells us why he’s now scared of the tech he helped build. *MIT Technology Review*. <https://bit.ly/3Zfw8Dv> (2024.11.30.검색).
- ODT. (2023). Office paper consumption statistics: The key data [2023]. <https://bit.ly/41cTeNG> (2024.7.31.검색).
- Pew Research Center. (2023). AI in hiring and evaluating workers: What Americans think. <https://bit.ly/4fmUti4> (2024.7.27.검색).
- Roser, M. (2022). The brief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world has changed fast — what might be next?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brief-history-of-ai> (2024.7.28.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2 November 2024; revised on 4 December 2024; and accepted on 9 December 2024.

---

***Author’s email address***

sblee0110@naver.com

***About the author***

Sang-Bin Le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ere he earned his Ph.D. His academic work centers on translation studies, with a special focus on AI-assisted translation, translators of Korean literature, and women in translation. Professor Lee has been honored with several awards, including Dongwon Education Award (2022) and JoongAng Ilbo’s Best Researcher Award (2016).

